

투데이 칼럼

핵폐기물 눈앞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핵 폐기물을 앞에 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운명 결정의 시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전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발진소 주변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설치여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원전 관련 자료와 실행을 담보할 정부의 핵폐기물 관리정책, 지역단위공론화 참여 주민의 합리적 선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은 물속에서 열을 식히면서 보관하는 습식 저장과 대기 중에서 공기로 열을 식히는 건식저장방식이 있다.

발전소 내 습식저장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영구처분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한수원이 공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방안은 원전 부지 여유공간에다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고준위핵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11차 회의까지의 진행내용 전반을 보면,



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참여 위원들간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필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설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임시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것을 열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향성 있고 신뢰할 만한 원전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이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수용한다면 영구처분장 부지선정 추진에 있어 정부 스스로 나태함을 방지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폐기물 배출량 단계별(3~5년 단위) 감축 의무제도 도입과 보관장

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실행 가능한 징벌적 수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금액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지원금 크기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원전 부지 내에 핵폐기물을 얼마나,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와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감수하고 양보할 것인가 하는 대의명분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희생 지역이나 개인에 대해 피해 가치를 어디에 두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장시설 설치를 허락하겠다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결정된 다음에 고려

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공론화 참여 지역 주민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여야 한다.

동일 기초자치체 내 주민 개인을 상대로 원전에서 물리적 거리, 예를 들면 5km 이내, 20km 이내와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참여 가능치를 다르게 두는 것은 구분 짓는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 갈등을 야기시켜 운영공동체를 해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론화 참여 인원수 선정 기준은 피해 상황이 저마다 다른 개인이 아니라 기초자치체가 되어야 한다.

원전과 핵폐기물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운영공동체인 기초자치체 주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 주민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 공론화를 위한 재검토준비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사설

중소기업 지원 폭넓고 꾸준해야

전북도의 중소기업 지원은 폭넓고 꾸준해야 한다. 고용 쇼크가 심각한 오늘날 지역 경제의 앞날이 암담하다. 그래서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던 게 다시 생각난다. 한국과 학기기술원과 손잡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던 거 말이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는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5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었다. 주식회사 일진복합소재, 주식회사 세명테크, 주식회사 다인스, 주식회사 새눈, 주식회사 지엠에프가 바로 그 행운의 기업들이었다.

전북도는 중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2천백억 원의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우면서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게 좀 오래 되었어도 기대가 컸던만큼 잊혀질 까닭이 없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싶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내 1만3천 개 기업을 위해 공급할 방

침이라고 말했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이제 보고할 법도 하다.

전북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 경기를 안 좋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약화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현 정부가 많은 희망을 말하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디스플레이이러면 불기러도 잡아야 하는데 물가 인상이 심하다.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난맥상이다. 이래저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염려 인할 수가 없다.

전북도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가는 현지 마케팅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은 고무된 일이다. 그래도 여기 다시 언급할 게 있다. 전체 중소기업인 30% 정도가 적자상태라고 보고했던 것을 늘 상 기해야겠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못지 않게 상황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에도 귀를 주어야 한다. 그들도 용기를 내서 계속 일하도록 동기를 강화시켜주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생생대화

도지사의 생생대화가 다시 생각나는 지극이다. 그게 좀 오래 된 것 이긴 하다. 그래도 도지사의 생생대화가 다시 생각나는 이유가 있다. 도지사가 찾아야 할 것을 제대로 짚었기 때문이다. 그때 도지사는 익산은 세계적인 농식품의 수도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농식품 수도라는 수사가 과장되기는 해도 익산 클러스터의 밝은 미래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산클러스터는 여태 변화의 기미가 없다.

물론 도지사의 그 발안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것은 약속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도지사가 익산의 발전현안에 마음을 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익산 클러스터 발전 현안에 힘을 실어 주겠다. 이 말이 담백한 그 이유가 병폐하다. 부정부패가 허언으로만 정채에 있는 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지난 날과의 비교일 뿐이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전북이 계속해서 낙후 지역이 아니니 후발주자라느니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낯익은 노릇이다. 그러므로 자체 평가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할 일도 아니다. 다시 또 강조하거니와 전북도는 발전이라는 것을 본래 청사신하고 비교해야만 한다. 그 청사신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결코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음에도 현정은 그게 아니라서 익산시민들은 쓴 입맛을 다셨다.

전북도는 생생대와 때 맞은 그대로 익산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룹별 유망 분야의 식품회사가 익산에 등지를 볼게 되겠다는 소식이 다시 또 생각난다. 네덜란드의 TNO 식음료연구소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던 거 맞다. TNO측이 익산에 익산 식품시장의 연구 개발 거점도시로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다.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산들도 식품 클러스터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전북도는 당찬 추진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방향지시등 점멸은 중요한 안전수칙

교통문화회차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방향지시등을 제 때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 습관이 매우 잘못된 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인 줄은 몰라도 끼어들기, 추월, 회전 등을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즐거운 가족여행, 퇴근시간 등에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놀란 상대방 운전자들은 급격한 흥분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등 운전을 하면서 기분이 상하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로 방향지시등이다.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은 다른 차에 좌·우회전이나 진로에 위험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한 운전예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도로위에서 무언의 의사표시인 방향지시등의 작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르지 못한 운전 습관에서 오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웃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운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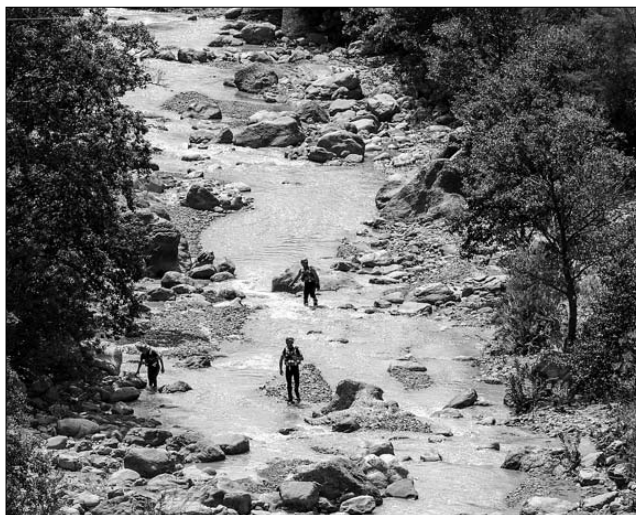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수로 10명이 숨진 이탈리아 남부 계곡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 소재 폴리노 국립공원의 협곡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전날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1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서의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